

‘대학등록금 반환’ 첫 걸음 댄 교육부... “먼저 실태조사”

정세균 국무총리, 지원 필요성 공감
정부차원 적극적 대책 마련 주문

추가적인 지원책 나올지는 미지수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도 “각 대학의 자율적 사안”이라며 손을 놓고 있던 교육부가 최근 대학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거진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7일 대학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최근 교육부에 “3차 추경에 등록



지난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등교수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 반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 각 대학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우선 당에서 등록금 지원과 관련한 대응책을 공리하고, 정부에서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논의를 통해 당정

간 합의를 이루면 3차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게 부연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취지에 맞춰서 등록금 반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등록금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전반적인 실태 파악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등록금 반환은 개별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학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반환 효과를 낼 방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등록금 반환은 반환 또는 장학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학교가 하는 것이지 교육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예산 1951억원을 편

성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과다 반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등록금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정 총리가 등록금 직접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인 만큼 교육부도 방안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이 재정 형편이 다른 만큼 재정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을 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대학을 통한 우회적 지원이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 총리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논의를 통한 당정 간 합의’를 언급한 만큼, 대교협에서 요구했던 ‘재정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완화해 특별장학금 지급을 가능토록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나

온다. 앞서 교육부는 대교협의 이 같은 제안에 “추후 결산 과정에서 국회에서 문제로 삼게 될 소지가 있다”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대학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도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데는 정부의 관련 연구에서도 소개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실린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대부분 대학 교수는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며 “원격수업 실시와 관련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해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 및 단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4일 대한민국 육군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희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육군협, 국방인재 역량 강화

산학협력 체결, 공동발전·우호증진

경희사이버대는 최근 전쟁기념관 내 대한민국육군협회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육군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경희사이버대의 임규숙 부총장, 백은영 글로벌·대외협력처장, 김정원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육군협회 측에서는 권혁신 사무총장, 안용락 사무국장, 신동호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고등교육의 수혜 기회를 더

욱 확대하고 향후, 군 간부·장병들의 역량 강화 및 자기계발을 위해 ‘국방인재 역량 및 군 전직 역량’ 강화 교육에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희사이버대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대한민국 육군협회’는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을 지원하고 육군 발전을 후원 및 대변하며, 국민과 정부와 군의 가교 역할을 통해 국가 총력안보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7년 설립됐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019년 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학과 및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사업’ 선정

IoT·AI 등 활용 스마트 그리드 관리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하대는 이문규 컴퓨터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스마트 그리드의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연구’를 제안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연구 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 1년이다.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 A&M 대학-킹스빌 캠퍼스와 공동으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스마트그리드 데이터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이 플랫폼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을 맡은 인하대 컴퓨터공학과(사진 위 왼쪽부터)김진산, 권희용, 박규찬, 안종민 학생과(사진 아래 왼쪽부터)노영태, 이문규, 원동준, 정재학 교수 /인하대

보호하는 사이버 보안 기술 관련 연구도 진행한다. 석·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각각 2명씩 모두 4명을 미국 현지로 파견한다. 이문규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노영태 컴퓨터공학과 교수, 원동준 전기공학과 교수, 정재학 전자공학과 교수가 함께 한다.

텍사스 A&M 대학-킹스빌 캠퍼스에서는 Taesic Kim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그의 연구실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 기반 기술 분야에서도 탁월한 연구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2학기 창의학기제 신청자 모집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는 뉴칼라인제 양성을 위한 ‘2020-2학기 세종 창의학기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창의학기제는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도전과제를 설계해 수행하면서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육과정이다.

신청 유형은 ‘자기 주도 창의학습’과 ‘제안과제 도전 학습’이 있다. 자기 주도 창의학습에는 ▲개발형 ▲창업형 ▲창작형 ▲문제해결형 ▲탐구형이 있으며, 제안과제 도전 학습에는 제안형 한

가지이다. 대상은 3학기에서 8학기까지의 재학생이다. 신청은 1인 단독 또는 5인 이하의 팀으로 해야 한다. 2020-2학기 창의학기제의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창의학습계획서를 작성 후 팀 대표와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스캔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세종대 홈페이지 학사 공지 게시판에 있는 창의학기제 게시글에서 다운이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송실대, 2021학년도 대입 상담 유튜브 진행

입학관리 담당자 실시간 채팅

송실대는 입학처 주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대입전형 설명회를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학년도 송실대학교 알기 쉬운 대입 전형 상담회’는 송실대 입학처 유튜브에서 6월 17일부터 7월 30일에 걸쳐 일정표에 따라, 총 11회에 걸쳐 개최된다.

본 상담회에서는 입학사정관 및 입학관리 담당자들이 2021학년도 수시 전형

의 질의에 응답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 정보 세미나를 개최해 자기소개서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면접 특강, 합격자 사례 특강 등 수험생 및 교사가 궁금해 하는 입시 관련 내용들도 함께 구성했다.

정기철 입학처장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입시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설명회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실시간으로 대입 전형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채팅창을 통해 입시 관련 질문을 올릴 수 있고, 그에 대



송실대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비대면 방식의 대입전형 설명회를 진행한다. /송실대

한 입학사정관들의 직접적인 답변도 들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시청을 독려했다.

한편, 송실대는 오는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학생부종합전형(SSU미래인재)은 총 83명을 모집한다. /이현진 기자